

사이토 도산(1494~1556)의 아들인 사이토 요시타쓰는 평균 신장이 157cm 였던 시대에 197cm 의 건장한 체구를 지녔고, 아버지 도산만큼이나 무자비한 기질을 지닌 인물이었다. 1554년, 60세가 된 도산에게 후계자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요시타쓰에 대해서는 도산의 아들이 아니라, 도산의 옛 주군이었던 도키 요리노리(1502~1582)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다.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 요시타쓰가 아닌 다른 아들, 혹은 그의 사위인 오다 노부나가(1534~1582)에게 대를 물려줄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요시타쓰는 기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사기 산성을 거점으로 삼고 후계자 문제를 매듭지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1556년, 요시타쓰는 형제들을 죽이고 사이토 가문의 병사 대부분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한 뒤, 나가라가와 전투에서 아버지를 공격했다. 도산은 이 전투에서 살해되었고 요시타쓰는 기후성을 장악했다.

노부나가는 장인의 복수를 위해 여러 차례 요시타쓰를 토벌하려 군사를 일으켰지만, 매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퇴각했다. 1559년에 요시타쓰는 교토에 방문해 있던 노부나가를 암살하기 위해 화승총으로 무장한 저격수를 파견했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요시타쓰가 1561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아직 10대였던 아들 사이토 다쓰오키가 그의 뒤를 이었다.